

재외동포의



2013 1월호



특집 : “우리 말 속에 민족정체성 있다”
재외동포재단, 올해 모국어교육 강화에 주력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謹賀新年

“재외동포와 모국의 동반성장 위해 총력”



한 해가 지나고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새해는 여러분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무엇보다도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귀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에서 시행된 재외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졌고, 이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여망이 반영되어 우리나라가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50년 이상 되는 해외이주 역사 속에서 720만 재외동포는 성공적으로 각 거주국의 모범적 시민으로 정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이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국력’이라는 인식 아래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정부의 정책지침에 따라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치단결하여 모국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외동포가 우리 국력의 일부’라는 의식이 널리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거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며 거주국에서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해 나간다면 동포사회는 물론 대한민국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단 직원 모두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언제나 함께할 것이며, 동포사회의 단합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단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목차 2013 1월호

- 2 **신년사** "재외동포와 모국의 동반성장 위해 총력"
- 3 **목차**
- 4 **특집** "우리 말 속에 민족정체성 있다"
재외동포재단, 올해 모국어교육 강화에 주력
- 8 **한민족공감**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당선인 국정 논의
"전력수급 등 민생" 당부에 "마지막까지 최선" 화답
- 11 **기획** 재외동포 교육 개선 위해 머리 맞대다
전문가 초청 토론회... 차세대 의식 조사
- 12 **화제** 재외동포재단, 대학생봉사단 2기 발대식
차세대 동포 모국 이해 돕는 봉사에 주력
- 14 **현장의 목소리**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올해도 계속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고교 순회교육... 3천여 명 참여
- 16 **한글학교 탐방** 두 나라 말과 문화를 아는 미래의 주역으로 키운다
독일 자알란트 한글학교
- 17 **글로벌 코리안** 고려인 청년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
- 18 **OKF뉴스** 재외동포재단,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위문품 전달 외
- 20 **지구촌 통신원** 꿈을 향해 뛰는 뉴욕의 한인 차세대
- 22 **이민사** '모범적 소수민족' 뉴질랜드 한인사회
- 23 **동포문학** 레몬나무 아래서
전희진(미국) 2012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 24 **나의 살던 고향** 눈과 바람이 그려낸 풍경화 태백
- 26 **GKN**



표지

계사년 새해를 맞았다. 재외동포재단은 동포 차세대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는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외동포 모국어 교육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발행인: 김경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을 초청해 학습 노하우를 비롯한 교수법을 배우고, 학교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오고 있다.

“우리 말 속에 민족정체성 있다”

재외동포재단, 올해 모국어교육 강화에 주력

재외동포재단의 모국어교육사업은 모국문화 이해와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이다. 재단은 올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늘려서 재외한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비 지원,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및 CIS 지역 민족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화기자재를 지원하고, 고려인학교 및 조선족학교에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재외동포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재외동포 모국어 교육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최근 확정된 한글학교 지원 예산은 전년 지원액보다 22% 증액되었다.

모국어 교육의 전초기지 한글학교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정이다. 김경근 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다양한 동포 지원 사업 가운데 한국어 교육 지원 등 민족교육에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한글학교 지원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한글은 민족혼이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통 도구이자 민족의 미래를 받쳐주는 것은 물론 민족을 영속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글 교육의 필요성을



한글학교 교사들은 동포 자녀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려 동포 차세대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강조해왔다.

재외동포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외 한글 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및 재외한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한글학교는 전 세계 120개국에 1천868개가 있으며 재단은 지역별 교육환경 및 한글학교의 규모,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인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세대는 모국에 대한 향수와 뿌리 깊은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현지에서 나고 자란 차세대들은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 한민족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곳이 한글학교다.

매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한인회장들이 “차세대 동포가 민족 정체성을 유지·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거주국에서 우리말과 문화에 관한 민족교육에 전력을 다할 것과 차세대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모국 정부가 강력히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그만큼 차세대 육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 외 교사·학습자용 콘텐츠 다양화

매년 한글학교 교사연수에 참가하는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교사들도 대부분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다 건물을 빌려 쓰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동포재단은 우선 재정

지원과 더불어 교재의 원활한 수급을 돕고 한인사회가 합심해 한글학교 교사 마련에 나서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스터디코리아’이라는 사이버 한국어강좌를 개발·운영하여 재외동포 청소년·성인 대상으로 상시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을 활용하여 단계별 한국어 학습콘텐츠, 한국사, 동화, 동요, 드라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새롭게 개편된 스토리코리아에서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한국어 학습 콘텐츠 서비스를 실시한다. 학습자의 동기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자와 비슷한 또래의 주인공이 한국어 학습을 하는 이야기로 구성되며, 스토리텔링 형식의 교수요목으로 학습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교사용 콘텐츠를 별도로 개발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학부모에게 학생용 콘텐츠 지도안을 제공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자용 콘텐츠와 동일한 원고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 팀, 과제물 학습지, 한국문화 소개 및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한다.

재단은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국어 학습을 돕기 위하여 2002년부터 스토리코리아를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만5천여 명



재외동포재단은 민족학교 지원을 위해 중국지역 조선어 교원을 초청해 2주간 최신 국어 교수법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의 회원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 '전문성 강화'

재단은 해외에서 동포 자녀 및 현지인들에 대한 한글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상호 교류를 통해 노하우를 익히는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서 유럽, 미주, 아시아 등 52개국에서 총 202명의 한글학교 교사들이 참가해 다양한 교수법을 배우고 학교 경영과 리더십 등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참가자 대부분은 한글학교 교사들이다. 중국 및 러시아, CIS 지역 등 일부는 정규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말 한글학교다. 학생수가 20명 남짓에서 100명 이내의 주말 한글학교들이다.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사명감으로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다양한 노하우가 생겼다. 교사 연수기간에 각 학교가 밝히는 '사례발표'는 교사들에게 귀중한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이 되고 있다.

최정인 세계한글학교협회 회장은 "한글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우리말과 얼을 가르치겠다는 봉사의 일념으로 교단에 서고 있다"며 "매년 동포재단 초청으로 체계적으로 교수법을 배우는 교사 연수는 가뭄의 단비처럼 반갑다"고 밝혔다.

재단은 국내로 한글학교 교사를 초청해 연수를 시키는 한편, 동포들의 거주국에서 열리는 교사 연수도 지원하고 있다. 현지 한글학교 교사 연수는 지역별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축전된 경험과 지식에 따라 연수의 규모, 프로그램 구성 등이 달라 2011년도부터 지역별 연수의 양적, 질적 수준을 해소하기 위해 대륙별뿐만 아니라 국가별 연합회 주관 교사 연수에도 한국어 교육 전문 강사 파견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재미한국학교협회가 주관하는 교사 학술회의에는 매년 8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재미한국학교협회에는 산하에 953개의 한글학교가 있어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학교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지역이다.

동포재단은 2013년에도 한글학교 교사 연수를 비롯해 CIS 지역 한국어교사 초청 연수, 중국지역 조선어 교원 초청 연수도 실시한다.

CIS 지역의 경우 고려인 교사들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초급 및 중급반으로 교사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조선어 교원의 경우 중국내 조선족학교의 정식 교사들로 전문성은 있지만 한국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살아있는 언어와 문화 교육을 위해 매년 2주간의 일정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및 지역 연수 등에 참가하기 어려운 교사들과 상시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글학교 교사 사이버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공간과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인데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어서 참여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학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 사이버연수를 실시했다. 2013년 연수과정은 내년 4월경 재외공관을 통해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이종미 재단 교육사업팀장은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24시간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거주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은 본인의 사정과 시차 등에 제한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우린 대한민국 장학생” 초청 장학사업

재단이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학 사업은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 모국 교육기관 수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산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36개국 총 200여 명이 장학생으로 재단 예산을 정부 장학금으로 받아 공부하고 있다.

거주국 가운데 중국 조선족과 CIS지역 고려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소외된 지역의 동포 자녀들에게 모국에서의 학습 기회를 더 부여하려는 정책에서다.

장학생은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 등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재단은 초청장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졸업 때까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등 뒷받침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연말에 발족한 OKF대학생 자원봉사단은 유학생들이 공항 마중에서부터 수강신청 등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유학생생활을 하려면 성적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모두 소정의 과정을 마쳐 거주국과 모국에 도움이



전 세계 120개국에 있는 1천868개의 한글학교들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재정이 열악해 한민회와 학부모들의 도움과 동포재단의 지원 등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모국어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 가운데 모국으로 유학을 오는 초청 장학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되는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지난해보다 9.4% 증가한 34억9천만 원을 장학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초청 장학생뿐만 아니라 중국과 CIS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동포 대학생을 선발해 소정의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단은 매년 두 차례 국내 초청 동포 장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깊은 고장을 탐방하면서 모국을 체험하는데 호응이 좋다. 참가자들은 “교과서 등 책에서만 보았던 모국의 산하를 체험하고 살아있는 역사를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라며 “한민족 뿌리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자부심을 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당선인 국정 논의

“전력수급 등 민생” 당부에 “마지막까지 최선” 화답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12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나 원활한 정부 인수·인계와 앞으로 국정운영 방안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현직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 만나는 것은 25년 만의 일이다.

박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이후 우선 쪽방촌 등을 찾아 어려운 이들의 삶을 살피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대기업 총수들과 잇달아 회담을 하며 민생과 화합을 위한 행보를 펼쳤다.

이 대통령 “안전·재해 마지막까지 최선”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 2일 오찬 회동을 한 후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이번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3시경 청와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박 당선인에게 환한 표정으로 “추운데 빨리 들어와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에 박 당선인은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답하고 나서 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2층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이 환담장에서 다시 한 번 박 당선인에게 축하를 건네고 “건강은 괜찮아요? 선거 끝나고 다니는 거 보니까 건강은 괜찮아 보여요”라고 하자 박 당선인은 “쪽방촌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쪽방촌 통로가 좁아 보였다”고 말했고, 박 당선인은 “조금 늘려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 때 여기저기 다녀보니 경기가 침체해 있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12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서민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봤다”라며 “강추위 속에 전력수급 등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전, 재해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당선인 민생과 화합 위한 행보

박 당선인은 12월 20일 당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 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추운 겨울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챙기겠다”고 밝힌 대로 당선 이후 화합과 민생·공생의 행보를 펼쳐왔다.

생활보장 수급자 김모(50대·5인 가족)씨 집을 찾아 도시락을 전달하고 나서 김 씨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박 당선인은 12월 25일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창신1동 창일경로당을 방문했으며, 이어 창일경로당 3층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도시락을 준비해 창신동 쪽방촌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에 반찬을 담은 박 당선인은 “성탄절 같은 날에는 더 외롭고 힘든 분이 많은데, 도시락을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과 함께함으로써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박 당선인은 김나나 쪽방촌 상담소장과 함께 어르신들께 직접 도시락을 전달했다. 신장염 등을 앓는 쪽방촌 3층에 거주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직접 도시락을 들고 3층까지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으며, 위암 판정을 받고 홀로 쪽방촌에 사는 또 다른 할아버지를 방문해 도시락을 전하며 위로했다.

12월 26일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대기업회장단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박 당선인은 먼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먼저 왔다”면서 “중산층을 70퍼센트까지 재건하려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같은 여의도동에 있는 전국경제인연합빌딩에 도착, 대기업 총수

들과 간담회를 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 대기업이 좀 변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윤보다 상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에 대해 “새 정부와 협력하여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구현하고 사회적 공헌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12월 27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고 인수위 부위원장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준비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



박 당선인은 12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난향동 난곡 사랑의 집을 방문해 난곡 사랑의 집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30여 개의 도시락을 준비하며 복지 정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당선인은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한다. 이런 추운 날 와보니까 하시는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면서 난곡 사랑의 집 김한수 사무국장에게 “국가나 사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 해 드리면 좋겠느냐”고 물었으며, 김 사무국장으로부터 생생한 조언을 들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인근에 거주하는 기초

무역 작년 1조 달러 돌파 ‘세계8강’

글로벌 경기둔화 속 9개월 연속 흑자도 달성



지난달 무역수지는 45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새벽 부산항 김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수출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끄모를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한국은 12월 중 다시 한 번 **트**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강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무역 1조 달러’란 신기원을 열며 반세기 만에 수출 5천 배의 신화를 썼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수출 기업과 종사자들의 노력, 그리고 3D 사업으로 불리면서도 소중한 기술 노하우를 지키며 제 역할을 해 온 뿌리 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홍석우 장관 주재로 2012년 수출을 최종 점검하고 2013년도 수출여건 진단을 위한 업종별 수출입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홍석우 장관은 이 자리에서 “12월 중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확실 시되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 시점은 지난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일

인 12월 5일보다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1~9월 무역 규모는 7천9백79억 달러로 영국에 이어 세계 8위에 오르며 올해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 및 전망’을 보면 세계적으로 수출과 교역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올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퍼센트 증가한 4백72억 달러, 수입은 1.5퍼센트 증가한 4백3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입 모

두 전년 대비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9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다. 또한 수출은 6월 이후 4개월 만에, 수입은 2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수요 회복 부진과 전 세계적인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록을 수립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기여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석유화학과 주요 정보통신(IT) 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선박·자동차·철강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부는 제49회 무역의 날인 12월 5일, 우리나라를 세계 8강의 무역대국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먼저 수출에 직접 기여한 업체 대표자와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하고, 당해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가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의 탑(총 38종)’을 시상했다. **장**

재외동포 교육 개선 위해 머리 맞대다

전문가 초청 토론회… 차세대 의식 조사



재외동포재단은 12월 14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재외동포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학 내 재외동포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재외동포교육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2월 21일 '동포 차세대 의식조사', '재외동포사회 이해를 위한 교재개발 연구', '재외동포사회 단합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미래발전방안 연구', '재외동포재단 중장기 비전 및 전략수립'에 대한 연구 영역 결과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동포 인식 적립 위한 이해 교육 필요

재외동포재단은 12월 14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재외동포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학 내 재외동포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재외동포교육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에서의 재외동포 이해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이진영 인하대 교수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었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재외동포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학 내에서 재외동포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자국 인구 대비 세계 제2의 재외동포 보유국으로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의 잠재력이 큰 나라인데도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재외동포정책의 낮은 위상으로 재외동포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고려대, 전남대, 공주대 등에서 시행되는 재외동포 관련 교육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임채완 전남대 교수, 임영상 한국외대 교수, 윤인진 고려대 교수, 최영호 영산대 교수, 최금좌 한국외대 교수 등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외동포 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세대 "한국 기업 활약에 가장 큰 자긍심"

세계 각국에 있는 동포 차세대들은 우리나라가 비즈니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 출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21일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각국의 20~40대 차세대 동포 761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어떤 때 자긍심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라는 응답이 23.3%로 가장 많았다.

차세대단체에 필요한 한국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직접적인 재정, 인력, 정보 지원 ▲모국 인식과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 역사 등 교육 지원 등을 꼽았다.

'재외동포사회 이해를 위한 교재개발 연구'에 대해 발표한 송석원 경희대 교수는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재개발 연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사회 단합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미래발전방안 연구'를 발표한 김웅기 홍익대 교수는 "재외동포 사회는 구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차별 엄존하는 가운데 세대교체와 무관한 국적 상황과 모국에서의 '2등 시민적' 지위 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재단 중장기 비전 및 전략수립'에 대한 연구 영역 결과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

재외동포재단, 대학생봉사단 2기 발대식

차세대 동포 모국 이해 돕는 봉사에 주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12월 26일 오전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2013년에 활동할 '재외동포재단 대학생봉사단' (2기, 22명)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 봉사단원은 세계한인청소년모국연수,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해 통역하거나 행사진행을 지원하고 재단 선발 모국 유학 장학생의 도우미 등 국내외 동포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독일동포로 한국으로 유학 중에 2기 봉사단으로 선발된 권오경

(24·한국외대 일본어학과) 학생은 “동포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3년째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받은 혜택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 기쁘다”며 “모국으로 유학 오는 후배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경험을 살려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국제 교류 분야, 대학 캠퍼스 활동, e-OKF 활동 등 3가지 분야에서 활약할 전망이다. 국제 교류 분야는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참여를 비롯해 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동포 초청행사에서 통역 관련 봉사도 하게 된다.

1기 우수 봉사단 일본연수 후기

또 다른 동포사회를 만나다 _ 고 발레리

주오사카총영사관, 오사카 건국학교, 한국교육원, 재일민단 오사카지부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방문했다. 영사업무에 대해서 한국학교와 재일동포사회의 구심점인 민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배웠다. 더불어 역사적인 명소도 둘러보았다.

재일동포 현황 및 한국교육원, 민단, 총영사관, 또한 일본 문화탐방, 전통 및 대표 음식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한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맛과 멋, 역사를 담은 책 _ 남윤정

일본에는 일제 강점기 정용, 학도병, 근로자로 차출되어 이주하게 된 재일교포들이 있어 마음이 아팠다. 한국문화원, 교육원을 방문하여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문화와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하지만 재외동포들과 재일교포들의 후손들이 한국문화에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가진다고 들었다.

일본요리는 '눈으로 먹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일본을 돌아보면서 일본이 음식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가를 나타내는 지 알 수 있었다.



1기 우수 봉사단원에게는 일본 연수의 기회가 부여됐다. 교토의 동지사 대학에 있는 윤동주 시비를 둘러보고 있는 봉사단원

한·중·일 삼국을 비교하다 _ 김정형

중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이번에 일본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원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게 되더니 이번에 일본에 다녀온 후에는 한국과 중국을 일본과 비교하게 된다.

일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비록 영토도 크지 않고 자원도 풍부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탄복한다. 대한민국의 후손으로서 한국의 발전에 긍지감을 느낀다.

대학 캠퍼스 활동은 구체적으로 모국 유학을 오는 동포 장학생의 공학 마중을 비롯해, 멘토 및 수강신청 등 생활 전반에 관한 안내 등을 돕게 된다.

e-OKF 활동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각종 행사 활동의 사진이나 글 또는 동영상을 알리는 소셜네트워크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재단은 향후 2차례 워크숍을 통해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안내하고 팀워크를 붙여 넣을 계획이다. 2기 자원봉사단은 1년간의 활동을 거쳐 2013년 11월에 해단식을 갖게 되며 외교부장관 명의의 수료증 및 봉사활동 확인서를 전달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해외 봉사대회 특전도 부여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대학생봉사단’은 재단이 국내외 재외동포 및 청소년 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 시행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25명이 수료했다.

재단은 올해 1기 수료생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 6명을 선발



해 지난 12월 19일부터 4박5일간 일본의 오사카, 교토, 고베 등을 순회하는 동포사회 탐방 및 연수를 실시했다.

김경근 재단 이사장은 “봉사단 활동이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청소년들의 인식 제고와 동포 청소년의 모국이해를 돕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국내 대학생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도록 봉사단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기 수료생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 6명을 선발해 지난 12월 19일부터 4박5일간 일본의 오사카, 교토, 고베 등을 순회하는 동포사회 탐방 및 연수를 실시했다.

차별속 뿌리 지켜온 재일동포에 감탄 _ 김서희

오사카에서 방문한 총영사관과 민단, 그리고 한국교육원에서는 해외에 있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의 업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외국에 거주중인 재외동포의 편리를 위해 현재 많은 제도와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며, 새삼스럽게 뿌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서만큼은 잃지 않기 위해 단합하는 분들에게서는 한국인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미도스지의 태극기를 기억하며 _ 이예진

내가 우즈베키스탄 출신 동포로서 다른 동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재일동포 사회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다. 일본식 통명을 쓰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재일동포 차세대들을 보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청년과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재일 동포들에 대한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졌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힘을 고려인 동포들과 합쳐서 뭐라도 하고 싶어졌다.

재일동포와 고려인은 닮은 꼴 _ 조엘레나

4박 5일간 오사카, 고베, 교토를 방문하여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민단 등의 재일동포 관련 단체 견학을 통하여 재일동포 사회에 관해 배우고 ‘조센진’으로 낙인찍혀 갖가지 차별 속에서 고군분투했을 재일동포들의 삶의 흔적들을 엿보게 되었고 재일 동포 사회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오사카 주재 총영사관은 오사카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제1가로 불리는 미도스지에 있는데 이는 재일동포들이 1974년에 ‘미도스지에 태극기를’이라는 제하의 모금운동을 통하여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성금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한다. **창**



12월 7일 오후 서울 보문동에 있는 경동고등학교 1학년 7반 교실. 재외동포재단 오영훈 기획실장이 이 학교 1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올해도 계속

지난해 8월부터 전국 15개 고교 순회교육... 3천여 명 참여

“재외동포는 남북한을 포함해 한민족 10분의 1에 해당하는 720만 명입니다.”

지난 8월22일 서울 동국대부속여고를 시작으로 포천고(경기) 전주여고(전북), 9월 서라벌고(서울) 광양고(전남) 목포여고(전남) 풍문여고(서울), 10월 서해고(경기) 울산중앙여고(울산) 대부고(경기) 명덕외고(서울) 대정여고(제주), 11월 대영고(경북) 신일고(서울), 12월 저동고(경기) 경동고(서울) 등 지금까지 전국 6개 지역 15개 학교에서 열려 3천여 명이 참가했다. 12월 7일에는 경동고등학교가 마지막 강의를 열렸다.

학생들, 동포 활약상에 '감탄'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청소년들의 재외동포에 대해 이해를 돕고, 향후 재외동포사회와 학교 현장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일 교사’로 학교를 찾은 오영훈 기획실장이 “우리나라 사람 10명중 2명이 8촌 이내의 재외동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별 흥미 없어 하던 학생들은 의지를 결상에 바짝 끌어다 앉으며 귀를 쫑긋 세웠다.

학생들은 단어조차 생소한 재외동포에 낯설어 했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동포들이 많이 있고 놀라운 활약을 통해 코리아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메모를 하는 등 강연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이어 오 실장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반기문 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신지애 골프선수도 재외동포”라고 사례를 들며 쉽게 ‘재외동포’의 개념을 설명하자 “어, 그래요”하고 놀라워하며 강의에 빠져 들었다.

이날 강의는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 정리는 물론 전 세계 한인 이민사, 동포사회 현황, 동포재단 사업 등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재성(17) 학생은 “처음에는 ‘재외동포’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고 낯설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동포들이 많이 있음을 알았다”며 “나도 한국의 위상을 떨치는 훌륭한 분들처럼 이제부터라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키워겠다고 결심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수(17) 학생은 “같은 한민족인데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웠다”며 “앞으로는 더 공부를 해 재외동포들도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재외동포 이해교육’은 전국 6개 지역 15개 학교에서 열렸고 3천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청소년들의 재외동포에 대해 이해를 돕고, 향후 재외동포사회와 학교 현장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포 이해’는 글로벌 시대 소양교육

이 학교 김현숙 교사는 “지구촌 한 가족이라고 할 만큼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소양교육으로 재외동포를 알 필요가 있어 강연을 요청했다”며 “거주국에서 활약하는 동포들에 대한 소개로 앞으로 유학 등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학생 중에는 방학을 이용해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하고 친척 중에 재외동포가 있는 사람도 많다”며 “재외동포의 존재를 더 많이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후 벌인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재외동포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등 새롭게 알게 돼 자부심이 생겼다 반가워하면서

도 동포 역사보다 현재의 동포사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재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고교생 대상 현장방문 교육’에는 3천여 명의 학생이 참가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김경근 재단 이사장은 “미래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고등학생들에게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두도록 재단 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앞으로 720만 재외동포사회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자알란트 한글학교는 30여 명의 학생이 유치반, 한글초급반, 초등1~3반, 중등반, 성인반으로 나누어 다니고 있다.

한글학교 운동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 나라 말과 문화를 아는 미래의 주역으로 키운다

독일 자알란트 한글학교

독일 중서부에 위치한 자알란트 한글학교에는 주변의 한인 자녀가 다니고 있다.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와 역사 교육을 통해 모국어를 배우고, 한국인의 뿌리를 찾아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독일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다.

최영주 한글학교 교장은 “교사들은 동포 2세들이 이중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중 언어 구사자의 장점을 살려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역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 군복무를 위해 2~3년간 독일에 근무하는 재미동포 자녀들에게도 문호를 열어서 한글학교를 다니고 있다. 부모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전 세계 어느 곳으로 발령을 받더라도 자녀들이 우리말과 글과 역사와 문화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사들은 대부분 교사 자격증이 없는 학부모나 유학생이다. 교사로써 전문적인 소양을 지니기 위해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교사연수 세미나 참석 등을 적극 권하고 있다.

자알란트 한글학교는 30여 명의 학생이 유치반, 한글초급반, 초등1~3반, 중등반, 성인반으로 나누어 다니고 있다.

독일 내 열악한 교육환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서 학급수가 적으며 할 수 없이 연령과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이 무료 봉사를 하거나 적은 보수에도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그 혜택을 학생들

이 누리고 있다.

최 교장은 “매월 교사회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각 반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나간다”며 “수업지도안을 만들어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글학교 교사들 가운데 유학생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공부를 마치면 귀국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여 종종 교사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최 교장은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이 교환학생 조건으로 한글학교에 와서 전문적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자알란트 한글학교는 한국문화와 한식 세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역사회의 축제나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쾰른 시청 앞 광장에서 15개국 이상이 참여한 행사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데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적극 동참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부침개와 불고기, 군만두, 김치 등을 선보여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 또한 한국 전통 옷 입어보기와 태권도 시범도 선보였다. **장**

고려인 청년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

러시아 고려인 3세 변호사 박 알렉산더



박 알렉산더
변호사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청년들을 만난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당당히 이름을 떨치고 있는 모습에 자부심도 느꼈죠. 이런 대회가 더 활성화 돼서 수많은 동포 청년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2012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했던 러시아의 고려인 3세 변호사 박 알렉산더(40)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년들 중에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이 많지만 모래알처럼 숨어 있다”며 “이들이 자연스럽게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로 모일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할린 홈스크시 출생인 박 변호사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국립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 졸업 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항공 지사에서 5년간 근무를 하면서 견문을 쌓았고 모스크바 국립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2012년 세계한인차세대 대회에 참가를 준비하면서 러시아 고려인 청년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대회에 참가하면서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들의 과거를 공부했고, 또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

다. 러시아에는 고려인이 25만 명 살고 있다.

박 변호사는 “모스크바에는 고려인 변호사가 30명 정도 있지만 정식 모임이 없어서 교류를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공별로 차세대 모임이 생기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차세대대회 참가후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전국 고려인 청소년 포럼에 참석했고 고려인 신문에 차세대 대회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무엇보다 고려인은 오랜 역사에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을 그는 강조한다.

“고려인은 러시아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반대로 러시아 사회에 영향을 준 민족입니다. 가수였던 고 빅토르 최가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죠.”

고려인은 러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를 알고 있기에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외교통상부와 러시아지역 개발부 주최로 열린 ‘러시아 지방정부 투자프로젝트 설명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에 러시아 투자 법률 부분에 대해 강연자로 참석한 고려인 변호사 박 알렉산더(40)는 지금이 러시아 투자 ‘적기’라고 소개했다.

한·러 수교 22년 동안 양국 간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며, 그 결과로 한·러 교역량은 수교 이후 최대 규모인 2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박 변호사는 기업의 자문변호사로서 러시아 칼루가주와 롯데제과의 2008년 12월 투자계약 체결 과정 및 공장 건설 과정에 참여했고, 롯데 제과는 칼루가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하에 2010년 9월 공장을 준공하고 현재 러시아 시장에서 파는 초코파이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 정부는 산업 현대화 정책으로 의료기구 및 제약생산, 컴퓨터 기술개발, 우주 항공 기술 및 정보통신, 에너지 절약 및 그린 산업에 대해서는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재단,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위문품 전달



재외동포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쌀과 생필품, 의료기기 등 위문품을 영주귀국 동포에 전달하고 격려해왔다. 김종완 재단 사업이사는 12월 28일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해 수제 소시지 및 스테이크 세트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3천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종완 재단 이사장은 12월 28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들을 찾아 위문하고 사할린에 남아있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김정수 재단 기획이사는 안산 고향마을, 김종완 재단 사업이사는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각각 방문해 수제 소시지 및 스테이크 세트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쌀과 생필품, 의료기기 등 위문품을 영주귀국 동포에 전달하고 격려해왔다.

남양주 사할린 정착마을의 이수진(70) 회장은 “영주귀국한 노인들은 연말연시면 더 외롭고 쓸쓸한데 찾아와주니 큰 힘이 된다”고 고마워했다.

이 회장은 “고국의 다양한 지원에 감사하고 또 보답하고 싶다”며 “영주 귀국자들은 고학력자가 많아 러시아, 영어, 일어에 능통한데 이를 살려 자원봉사 할 곳을 찾고 있

다”며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할린에는 일제 강점기에 남사할린의 탄광과 군수시설 건설 현장 등으로 강제징용된 뒤 1945년 종전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한인 1세대와 그 후손 등 4만여 명이 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1994년 한·일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계기로 고국에 돌아왔으며 현재 서울과 인천, 안산, 부산, 남양주 등 26개 지역에 살고 있다.

2012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입상자 발표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재외동포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공모전을 실시해 입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식은 1월 18일 재단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논문 공모전은 재단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공모가 잇따라 재외동포 분야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관련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학위논문의 학문적 완성도, 정부정책 및 재외동포재단 사업과의 연계성, 논문주제의 시의적절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5편의 우수논문을 선정 하였습니다. 입상자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 우수논문 입상자 명단(가나다순)

- **강주원** '중·조 국경 도시 단동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 북한사람, 북한화교, 한국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 박사학위논문, 2012. 8.
- **강희영** '한인여성디아스포라의 이주경험과 트랜스로컬 정체성에 관한 연구 : 구소련권 유학이주여성들의 한국체류경험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2012. 8.
- **김태진** '재미 한글학교 교육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육주체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 석사학위논문, 2011. 1.
- **손미경** '문화플랫폼으로서 도쿄오사카 코리아타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 박사학위논문, 2013. 2.
- **이정선**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 연구 - 역사복원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논문, 2011. 8.

한글학교 교사 '스터디코리아' 통해 온라인 연수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한글교육사이트 '스터디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연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서비스된 온라인 교사 연수 콘텐츠는 모두 15개 과정으로 각 과정은 15분 내외의 동영상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연수 콘텐츠는 한글 자모음과 제자 원리, 조음법을 바탕으로 한 '한글과 발음교육', 전래동요와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국악놀이 수업'을 비롯해 멀티미디어 수업 노하우와 미술·게임 활용법 등 다양한 수업법을 전하는 강의들로 구성됐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오프라인 연수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외부 위탁 사이버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 기회가 한정돼 있었다”며 “이번 온라인 연수



를 통해 한글학교 교사들의 연수 갈증을 해소하고 수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상대회 참가자, 기업전시회에 가장 관심

세계한상대회 참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회 프로그램은 기업전시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10월 제11차 세계한상대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대회 비즈니스 효과 및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39.8%(복수응답 가능)가 가장 관심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전시회를 꼽았다고 12월 17일 밝혔다.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33.1%), 1대 1 비즈니스 미팅(28.2%), 유통 바이어 초청 상담회(26.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참가 목적도 수출 상담(34.8%), 정보 수집(25.0%), 인적 네트워크 구축(14.7%) 차례로 높게 나타나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얻기 위해 세계한상대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기업전시회 만족도가 3.98점으로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인 4.07점에 못 미쳐 참가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 대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대회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0.5점으로 지난



세계한상대회 참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회 프로그램은 기업전시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 78.6점에 비해 올랐고 비즈니스 성과 만족도도 5점 만점에 3.79점으로 지난 대회의 3.64점보다 높았다.

차기 대회 참가 의향을 묻는 항목에는 78.3%가 참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나 해외에서 개최할 경우에 참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50.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회 기간 국내 참가자 453명, 해외 참가자 147명 등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

꿈을 향해 뛰는 뉴욕의 한인 차세대

미국에 한인 이민 1세대들이 처음 정착하기 시작하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많은 한인 차세대들이 다양한 삶에 도전해서 한국인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기존에 한인 부모들이 자녀의 직업으로 선호하던 의사, 변호사 등 몇 개의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 도전해서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같은 한인 차세대로서 정말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든다.

한식으로 뉴욕 입맛 사로잡다

뉴욕 맨해튼 52번가 한 레스토랑 앞. 저녁식사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인 5시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다. 밖에 서서 레스토랑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마치 이탈리아나 스페인 음식점으로 착각할 분위기이지만 이곳은 '단지(Danji)' 라는 한국 레스토랑이다. 이 레스토랑의 오너이자 요리사인 김훈이 쓰는 한인 2세이다.

전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뉴욕에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 및 수많은 음식 평론가들의 격찬을 한몸에 받음과 동시에, 세계 최고 권위의 레스토랑 평가 잡지인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별등급을 받은 첫 한국 레스토랑의 자랑스러운 요리사 김훈이 씨.

UC버클리 대학에 진학한 모범생 김훈이 씨가 프랑스 요리학교에 등록하기로 했을 때에는 의과 대학원 졸업을 고작 한 학기 남겨두었을 때였다. 의사가 되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크게 실망했지만 요리 학교를 마치고 뉴욕 최고의 프랑스 레스토랑인 '다니엘(Daniel)'에 취직하자 아들이 선택한 길을 인정해주었다.

“의사가 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죠. 하지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최고가 될 수 없었죠. 열정이 없었으니까요. 나의 인생이니깐, 그래서 내 생각부터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로. 그러면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확신



1

이 있었어요.”

단지의 메뉴들은 갈비조림, 찌개류, 골뱅이 무침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정통 한식들이다.

“한식을 요리하는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전통에 대한 자긍심이 담기지 않은 요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제 요리에는 저만의 색깔이 묻어 있죠. 한국인임에도 한국이 아닌, 인종과 문화의 ‘융광로’ 와도 같은 뉴욕에서 자라면서, 이 도시가 가진 방대한 문화적인 다양성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를 항상 고민했지요. 이러한 요소들이 제 요리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국의 맛을 고수하려고 해요.”



2

그는 얼마 전 맨해튼 26번가에 주막 콘셉트로 '한잔(Hanjan)' 이라는 새 레스토랑을 열었다. 뉴욕에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는 많지만, 한국식 주막은 찾아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이유였다.

1 뉴욕에서 미술랭 가이드의 별 등급을 받은 레스토랑 '단지'의 사장 겸 요리사인 김훈이 씨.(Tom Kirkman 제공)

2 김훈이 씨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을 위해 의사의 길을 접고 요리사가 됐다.(Jame Park 제공)

3 워싱턴포스트지가 로봇 분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대서특필한 버지니아 공대의 데니스 홍 교수.(Virginia Tech 제공)



자신이 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라

과학계에는 워싱턴포스트지가 로봇 분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대서특필한 버지니아 공대의 데니스 홍 교수가 한국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 그는 세계 최초 시각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와, 타임지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발명품인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를 개발한 한인 차세대 로봇 공학자이다.

미국 과학잡지 파퓰러 사이언스가 뽑은 '과학을 뒤흔드는 젊은 천재 10인', 미국 국립 과학재단의 '젊은 과학자상' 수상, 세계 각국의 천재들이 지식 경연을 벌이는 '테드(TED) 콘퍼런스'에서 한국인 최초로 강연, 미국 최초 '세계 로봇 월드컵 (로보컵) 대회' 우승 등 한 사람이 이루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많은 업적의 주인공이다.

“제가 일곱 살 꼬마였을 때 극장에서 ‘스타워즈’를 처음 봤는데, 그때의 흥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영화에 나오는 로봇들을 보고 너무 흥분해서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했어요. 마법에 빠진 것 같이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극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기로 하고는 한 번도 그 생각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때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그가 지금 만드는 로봇들 안에는 그때 그 일곱 살 어린 두 눈으로 보았던 로봇들의 모습이 분명히 담겨 있다.

현재 재난 수습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견고, 기고, 타고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는 로봇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과학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의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고 너그러운 성인으로 자라길 바란다면 “돈과 명예는 자신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남들이 다 하는 분야를 따라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의 길을 개척하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그게 최고가 되는 비결이 아닐까요?”

데니스 홍 교수와 김훈이 요리사는 현재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지만, 그들도 오래 전에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내디딘 첫 걸음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고자 끊임없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한 과정에 피할 수 없었던 많은 좌절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그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지만, 진정 가슴 설레는 일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꿈을 향해 가는 길, 그 과정이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순간이며 값진 경험이라고 믿는다.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 차세대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창**

이재영 미국 통신원, 변호사, '꿈을 이뤄드립니다' 저자

‘모범적 소수민족’ 뉴질랜드 한인사회

지난해 방한한 머리 매컬리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아주 높다.

인구의 1%를 차지하는 한인 동포들이 매우 근면하고 뉴질랜드 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들 코리안 키위는 양국 관계 증진에 튼튼한 기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한국과 뉴질랜드는 수교를 맺은 지 51년이 됐다. 뉴질랜드는 한국전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하는 등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50~60년대에는 한국의 원양

어선의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국에 중요한 외화를 벌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콜롬보장학생을 선발해서 선진국의 낙농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뉴질랜드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한인 유학생들과 소수의 교민들이 찾아왔다. 1962년에 입양되어 온 김성미 양(1971년 당시 15세), 1968년에 참전 용사와 결혼해 오클랜드에 정착한 Mrs. Morton, 1969년에 크라이스트처치 링컨 칼리지 연구원으로 취업해 온 정재훈 박사 가족, 1969년에 오클랜드에 정착한 김영이 씨 가족 등이 초기 이주자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89년 투자이민이 열리고 1992년 일반 이민이 시작되면서 한국인들이 늘어났다. 1995년에 잠시 주춤하던 이민은 다시 한국의 IMF를 맞으면서 이민자들이 조금 감소했다가 2000년에 장기사업비자로 보다 더 많은 한인들이 이곳으로 오게 됐다.

10여 년 동안 한인이민자들은 이민법과 경제상황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요즘은 해마다 한인이민자들의 수가 줄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뉴질랜드 한인사회는 1세대들의 노력에 힘입어 차세대들이 주류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1 뉴질랜드 한인 최초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
2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는 지난해 한·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한국의 날'에는 축하 행사를 비롯해 역사 사진전 등을 열었다.

가 늘어나고 있으며 재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는 한인사회에 큰 자부심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다종교가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이민자들의 나라다. 그렇기에 비교적 개방적이고 새로운 가능성이 많은 나라다.

홍영표 오클랜드 한인회장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뉴질랜드 이민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해왔다”며 “앞으로 한국인이 꾸준히 이민을 오고, 뉴질랜드 내에서 모범적인 소수민족 사회로 성장해 가고, 나아가 뉴질랜드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인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한인 차세대를 중심으로 한 ‘김치클럽’이 결성돼 차세대의 주류 진출을 돕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외무부, 보건부, 시위원회 등 뉴질랜드 공무원, 또는 의사, 변호사 등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멜리사 리 씨는 “한인 1.5세대와 2세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뉴질랜드 주류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1세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참]**

레몬나무 아래서

전희진(미국) 2012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꽃봉오리 대신
봄소문 터트리는데
하얀 꽃들
빗방울이 그렁그렁 달려 있다
그 사이를
구경꾼처럼 비집고 들어온 아침햇살
꺾어져 기운 잔가지 하나
내 앞에 가로놓여
손을 뻗어 꺾어내려다 문득
가지 끝에 매달려있는 레몬알 두어 개와
쫄르르 달려 나온 붉은 꽃망울들
이민국이라는 포클레인에 실려
강제 추방이 될
지체장애를 앓는 아들과 부모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생이별 하는
소문만큼이나 눈물 나는
시름시름한 봄

눈과 바람이 그려낸 풍경화 태백



하늘 아래 첫 풍차'가 돌아가는 강원 태백시 매봉산 정상 바람의 언덕이 은빛 설국(雪國)으로 변했다.

겨울 태백은 순전한 설국(雪國)으로 다시 태어난다. 시선과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요란한 빛깔과 소리가 모두 배제된 자연을 만날 수 있다. 그 순백의 풍모는 담백하고 늙름하다. 사람으로서 나아갈 길을 말해주는 듯하다.

겨울 태백에 가면 매봉산(1천303m) 정상부 '바람의 언덕'부터 올라야 한다. 산비탈을 개간한 광활한 고랭지 배추밭, 하늘과 맞닿은 능선에 일렬로 서서 거대한 바람개비를 돌리고 있는 풍력발전기들로 인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여행지다.

매봉산은 일몰과 일출이 모두 빼어나다. 겨울 당일치기 여정이려면 일몰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높이 40m가 넘는 8기의 하안 풍력발전기 너머 하늘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보노라면 마음을 온통 빼앗긴다.

겨울 태백산 등반의 백미는 눈꽃 핀 주목(朱木)이다. 태백산의 주봉인 장군봉 아래 산재한 주목에 탐스러운 눈꽃이 피어 황홀한 풍경을 빚어낸다. '살아 천 년, 죽어 천 년'의 수식어로 잘 알려진 주목이 눈꽃과 어우러져 빚어내는 풍경은 한 번 마주하면 절대 잊을 수 없다. 겨울 태백산 등산로가 인파로 붐비는 주요 원인이 된다.

겨울 태백의 또 다른 절경은 검룡소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다. 지

난 초겨울 내린 폭설로 주차장이 있는 안내소부터 검룡소까지 이어진 오솔길은 눈밭으로 변해 있었다. 수일간 쉬지 않고 내린 눈이 녹지 않고 두툼한 솜이불처럼 온 산을 덮은 형국이었다. 눈의 무게에 눌러 주저앉거나 부러진 나목(裸木)의 가지가 곳곳에서 눈에 들어왔다.

'만복이'가 뛰노는 남부마을

태백 상장동 남부마을에선 한 세대 전으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석탄산업 호황으로 풍요로웠던 1970~80년대 태백 탄광촌의 모습을 묘사한 벽화 7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남부마을 벽화는 탄광의 하루, 광부들의 애환, 탄광촌 아이들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다. 상장동 주민 센터가 과거 광부로 일했던 마을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옛 탄광촌의 면면을 재현해냈다고 한다.

벽화는 탄광회사 사택 밀집 지역이었던 마을의 돌레 길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다. 갤러리의 동선처럼 마을 전체를 한 바퀴 돌면 탄광촌 이야기 여행을 마치게 된다.

남부마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그림은 입에 지폐를 물고 있는

강아지다. 태백이 탄광도시로 풍요로웠던 시절에 풍문으로 전해지던 '만 원짜리를 몰고 다니는 강아지'이다. '만복이'는 만원과 함께 만 가지 복을 몰고 다닌다는 의미라고 한다. 옛 탄광촌 여행은 철길이 지나는 남부마을 초입에서 뛰놀고 있는 '만복이'를 찾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태백산 눈축제

태백의 풍부한 눈을 이용한 축제로 1994년 첫선을 보였다. 초창기부터 전국 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 시베리안 허스키 썰매 타기, 태백산 눈꽃 등반 대회, 가족 눈사람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아 한국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제20회 태백산 눈축제는 '태백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눈 이야기'를 콘셉트로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개최된다. 대규모 눈싸움 대회, 이글루 카페촌, 스노 래프팅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코레일이 눈축제 기간을 비롯한 겨우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 출발하는 '태백산 눈꽃열차'를 운행한다.



순백의 시크릿 가든에서 즐기는 태백의 맛(味)

맛집 순례는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태백 여행에선 한우, 감자 웡심이, 닭갈비를 빼놓지 말아야 한다. 청정 고원지대에서 자란 한우의 맛이 어떻게 다른지, 강원도 대표 작물인 감자로 만든 웡심이 어떤 맛인지 확인할 수 있다.

태백처럼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가 더 맛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태백 한우의 명성은 과거 탄광산업의 호황과도 연관돼 있다. 몸은 고달프지만 주머니는 넉넉한 광부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식당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태백의 고기 맛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태백 한우를 맛봤다면 다음 메뉴는 감자 웡심이, 감자 수제비다. 감자는 쌀이 태부족하던 시절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많이 먹던 대표적인 구황작물이다.

태백 닭갈비는 수년 전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한 메뉴다. 양념에 버무린 닭갈비에 육수를 부어 끓여 먹는다는 점에서 춘천 닭갈비와 차이가 있다. 맛을 보면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편이다. **창**



1 새해를 맞이해 강원 태백시에 있는 태백산 정상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겨울산의 정취를 만끽하며 산을 오르고 있다.

2 옛 탄광 사택촌이었던 강원 태백시 상징동 남부마을 골목에 그려진 광부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3 용연동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동굴로 1980년 강원도 지방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됐다. 안전모를 쓰고 탐방로를 따라 동굴 내부로 들어서면 석순, 종유석, 석주, 동굴진주, 동굴산호 등 눈길을 끄는 자연 생성물을 만날 수 있다.

4 태백산 눈축제가 열린 강원 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 당골광장 대형 눈 조각 전시장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5 석탄 탄광이 많았던 태백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석탄박물관에 구호대원들의 모습이 복원돼 있다. 박물관에는 지하에서 석탄이 생성되는 과정과 석탄 채굴 방식, 광부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탄광 재해 사례, 탄광촌의 금기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재단은 재외동포단체의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1 홈페이지 무료 신규 제작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비용 절감
- 코리아넷 글로벌 도메인 제공

(ex) 유럽한인총연합회 **eu**.korean.net
 스위스한인회 **swiss**.korean.net

2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디자인, 메인화면, 메뉴 등 온라인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한글학교, 한인회, 경제단체 등 비영리 동포단체 대상입니다.



독도 공식 웹사이트 <http://dokdo.mofat.go.kr/>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에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 서도와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 336호인 독도는 60여종의 식물, 129종의 곤충, 160여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독도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720만 재외동포가 하나되는 그날까지

재외동포재단 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당신은 자랑스런 한인입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모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